

**2017  
Resident  
Artists  
of  
Incheon  
Art Platform**

2017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프로그램  
8기 입주작가

## 2017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프로그램 8기 입주작가

### 2017 Resident Artists of Incheon Art Platform

#### 시각예술 Visual Arts

강주현	KANG Juhyeon
고등어	Mackerel SAFRANSKI
곽이브	KWAK Eve
금혜원	KEUM Hyewon
김순임	KIM Soonim
라이트 티모(3~5월), 핀란드	Timo WRIGHT(Mar - May), Finland
리 리우양(6~8월), 중국	Liuyang LI(June - Aug), China
범진용	BEOM Jinyong
심승욱	SIM Seung Wook
안경수	AN Gyungsu
안상훈	AHN Sanghoon
장서영	CHANG Seo Young
정석희	JUNG Seok-Hee
정아롱	CHUNG Arong
정혜정	JUNG Haejung
푸이에 델핀(9~11월), 프랑스	Dephine POUILLE(Sep - Nov), France
황경현	HWANG Gyunghyun
황문정	HWANG Moonjung



## 공연예술 Performing Arts

댄스컴퍼니명

Dance Company MYUNG

박승순

PARK Seungsoon

서영주

SEO Youngjoo

앤드씨어터

A.N.D. Theatre (Analog and Digital Theatre)

## 연구-평론 Research-Criticism

김홍기

KIM Hongki

손송이

SON Songyi

이정은

LEE Jeongeun

최윤정

CHOI Yoonjung

## 국제교류 International Exchange

쿠로다 다이스케(6~8월)

Daisuke KURODA(June-Aug)

일본 뱅크아트1929 교류 작가

Exchange artist from BankART1929, Japan

코넬 테이아(9~11월)

Theia CONNELL(Sep-Nov)

호주 아시아링크 교류 작가

Exchange artist from Asialink, Australia

## E동 스튜디오 Studio Building E

E1	시각예술 강주현 KANG Juhyeon	E10	시각예술 황문정 HWANG Moonjung	E16	시각예술 정석희 JUNG Seok-Hee
E2	시각예술 안경수 AN Gyungsu	E11	시각예술 김순임 KIM Soonim	E17	시각예술 고등어 Mackerel SAFRANSKI
E3	공연예술 서영주 SEO Youngjoo	E12	시각예술 금혜원 KEUM Hyewon	E18	국제교류 쿠로다 다이스케 Daisuke KURODA 일본 Japan 6~8월 Jun-Aug
E4	시각예술 황경현 HWANG Gyunghyun	E13	공연예술 박승순 PARK Seungsoon		테이아 코넬 Theia CONNELL 호주 Australia 9~11월 Sep-Nov
E5	시각예술 심승욱 SIM Seung Wook	E14	시각예술 티모 라이트 Timo WRIGHT 3~5월 Mar - May 핀란드 Finland	E19	시각예술 장서영 CHANG Seo Young
E7	시각예술 곽이브 KWAK Eve		리 리우양 Liuyang LI 중국 China 6~8월 Jun-Aug	E20	시각예술 정아롱 CHUNG Arong
E8	시각예술 안상훈 AHN Sanghoon		델핀 푸이에 Delphine POUILLE 프랑스 France 9~11월 Sep-Nov	E21	공연예술 앤드씨어터 A.N.D. Theatre
	시각예술 범진용 BEOM Jinyong	E15	시각예술 정혜정 JUNG Haejung	E22	공연예술 댄스컴퍼니명 Dance Company MYUNG

## F동 게스트하우스 Guest House Building F

F1

연구평론  
최윤정  
CHOI Yoonjung

F4

연구평론  
손송이  
SON Songyi

F7

연구평론  
이정은  
LEE Jeongeun

F8

연구평론  
김홍기  
KIM Hongki

## 층별 위치 안내 Locations

3F

E2

12  
10 11

E3

18 17  
19 20

F

07 08

2F

E2

09  
07 08

E3

14 13  
15 16

F

04

1F

E1

01 02 03  
21 22

E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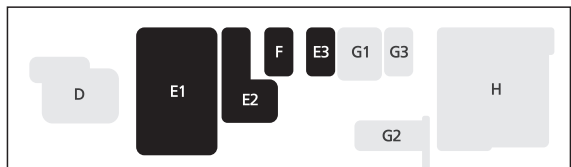
04 05

E3

작가휴게실  
Lounge

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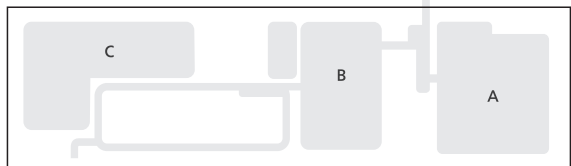
01



◀인천역, 차이나타운

▶동인천역, 신포동

인천아트플랫폼 배치도  
Site Plan



# Contents

	시각예술	Visual Arts
강주현 KANG Juhyeon	8	
고등어 Mackerel SAFRANSKI	9	
곽이브 KWAK Eve	10	
금혜원 KEUM Hyewon	11	
김순임 KIM Soonim	12	
라이트 티모(3~5월), 핀란드 Timo WRIGHT(Mar - May), Finland	13	
리 리우양(6~8월), 중국 Liuyang LI(June - Aug), China	14	
범진용 BEOM Jinyong	15	
심승욱 SIM Seung Wook	16	
안경수 AN Gyungsu	17	
안상훈 AHN Sanghoon	18	
장서영 CHANG Seo Young	19	
정석희 JUNG Seok-Hee	20	
정아롱 CHUNG Arong	21	
정혜정 JUNG Haejung	22	
푸이에 델핀(9~11월), 프랑스 Dephine POUILLE(Sep - Nov), France	23	
황경현 HWANG Gyunghyun	24	
황문정 HWANG Moonjung	25	

공연예술  
Performing Arts

댄스컴퍼니명 Dance Company MYUNG	26
박승순 PARK Seungsoon	27
서영주 SEO Youngjoo	28
앤드씨어터 A.N.D. Theatre (Analog and Digital Theatre)	29

연구-평론  
Research-Criticism

김홍기 KIM Hongki	30
손송이 SON Songyi	31
이정은 LEE Jeongeun	32
최윤정 CHOI Yoonjung	33

국제교류  
International Exchange

쿠로다 다이스케(6~8월), 일본 뱅크아트1929 교류 작가 Daisuke KURODA(June-Aug), exchange artist from BankART1929, Japan	34
코넬 테이아(9~11월) 호주 아시아링크 교류 작가 Theia CONNELL(Sep-Nov), exchange artist from Asialink, Australia	35

## 강주현

### KANG Juhyeon

artist-kjh@hanmail.net  
http://blog.naver.com/jubal81k/

1981년 생, 서울 거주



시간을 머금은 드로잉 - 드로리언\_1000×500×500cm 이내 가변설치\_PVC, 레진, 철, 디지털 프린트\_2015  
DRAWING WHICH HOLDS TIME - De Lorean\_dimensions variable within 1000×500×500cm\_PVC, resin, steel, digital print\_2015

사진으로 치환된 결과물들의 다수는 오히려 실제와 기억의 경계를 흐릿하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계에 대한 고민들은 보이지 않는 차이에 대한 물음으로 이어진다. 강주현은 일련의 사진작업들을 통해 사진과 조각과 드로잉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사진조각과 사진드로잉의 형식적 가능성을 실험한다. 제한된 프레임 안에서의 재현적 사진을 입체로 구현해 사진조각을, 사진을 중첩된 선들의 집합으로 재구성해 사진드로잉을 실현하는 것이다. 사진을 단순히 대상을 기록하는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진의 여러 가지 조형적 특성을 발굴하고 실험하여 대상을 구현함으로써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과 사진이라는 매체의 미세한 차이들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런 차이는 무언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에 대한 경계를 허물게 할 것이다. 현재 <감정의 신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는데, 이는 특정 대상에 작용하는 보이지 않는 차이를 투영하여 새로운 오브제들을 만들고 이에 관해 연구하는 작업이다. 인천아트플랫폼에서도 역시 경계의 위치에 존재하는 '차이'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실험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단순히 보고 느끼는 이미지만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 상상력이라는 요소들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되거나 상상 속에서 만들어지는 대상으로서의 이미지로, 이미지의 개념을 새롭게 확장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것이다.

Numerous results substituted with photos blur the boundary between the reality and memories. Concerns about the boundaries lead to questions about invisible differences. Kang Juhyeon experiments formal possibilities of photo-sculpture and photo-drawing crossing the boundaries between photos, sculpture and drawing through a series of photographic processes. Photo-sculpture is realized through three-dimensional implementation of reproductive photos within restricted frames, and photo-drawing is actualized through recomposition of collection of overlapped lines. He does not consider photos as a means of recording objects but focuses on exploring and experimenting various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photos to actualize the subjects and unveil fine differences between invisible subjects and the media known as photos. Such differences will make us tear down the boundaries of our view on something. Currently, a project titled *The Body of Emotions* is underway revealing invisible differences in specific objects to create and study new objects.

His experiments on visual expressions of invisible things through a new interpretation of 'differences' existing in boundaries will be continued at Incheon Art Platform, expanding the concept of image to newly combine images, using such factors as time, space and imagination, or to create imaginary images, which are beyond images just for seeing and feeling.



## 고등어 Mackerel SAFRANSKI

[martineda@hanmail.net](mailto:martineda@hanmail.net)

1984년 생, 서울 거주

살갓의 사건\_29×21cm\_종이에 연필\_2016  
Skin to Skin\_29×21cm\_pencil on paper\_2016

오랫동안 식이장애를 앓아왔던 고등어는 이제 그 시절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많은 부분 극복을 했지만 그 이후 달라진 몸을 겪어 오다 보니 치유를 넘어서, 환생을 넘어서 '다른' 몸에서 살아가고 싶어졌다. 그렇게 '정신'은 온전히 그대로 유지한 채로 과연 '다른' 신체에서 살아가갈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갖게 되었다. 그녀에게 이러한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는 방법이 바로 그림이다.

살아가기 위해 어느 정도의 불안은 필요하다. 하지만 문제는 불안이 '나'라는 범위를 초월하여, 자아와 타자 사이를 구분 짓는 중간 영역이 무너질 때 더욱 커진다는 것이다. 그것은 신체가 무너지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이때 주체가 상실되었음을 느낀다. 그녀는 단순히 불안이라는 감정을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느끼는 신체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몸 존재론에 기초한 주체화의 가능성을 탐구해 보려 한다.

고등어는 주체 바깥의 신체, 타자의 신체와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두 번째 신체'에 주목하여 스스로의 신체에 대해 환기해보며 신체 바깥에서의 주체화에 대해 다양한 미디어를 가지고 작업을 해나가고 있다. 그녀는 '신체성'을 '관계하는 신체'와 '노동하는 신체'로 나누고, 한 개인이 이러한 신체성을 물질적으로 분열되고 억압적인 상황과 사회 구조 속에서 어떻게 획득해 나가는지 그 과정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Mackerel who has suffered from an eating disorder for a long time is presently far away from those days almost recovering from it, but as her body has changed after that, she wanted to live in a 'different' body transcending cure and rebirth. This led to a question, "Is it possible to live in a 'different' body while keeping the 'spirit' intact as it is?" She found an answer to the question in drawings.

Some anxiety is inevitable in life. The problem is that anxiety gets worse when the gray area that divides self and the others collapses transcending the scope of 'myself'. It is no better than collapse of the body. At this time, it feels like the subject has disappeared. She tries to explore the possibilities of subjectivation based on the theory of body ontology by talking about the body that feels anxiety instead of 'drawing' such emotion as anxiety.

Paying attention to 'a second body' made through combination of the body outside the subject and the bodies of the others, Mackerel uses diverse media with regard to subjectivation outside the body while reflecting on the body for herself. She divides the body into 'relational body' and 'working body' and tries to examine the process with regard to how one individual recovers the body in a circumstance of physical separation or suppression.

## 곽이브 KWAK Eve

pisho@naver.com  
www.facebook.com/eve.kwak

1983년 생, 인천/서울 거주



면대면 1\_59.4×84.1cm, 42×59.4cm, 29.7×42cm, 총 6층, 가변크기\_피그먼트 프린트\_2015  
Face to Face 1\_59.4×84.1cm, 42×59.4cm, 29.7×42cm, six in total, dimensions variable\_pigment print\_2015

곽이브는 평소 우리가 살아가는 물리적 환경과 삶의 구축성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 주로 건물 형태에서 오는 부동성과 건축적 활동을 관찰해왔으며, 생김을 스케치하고 행위의 가변성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평면이면서 입체가 되고, 입체이면서 평면이 되는 매체들(페인팅, 조각, 책, 인쇄물)을 다루고 있다.

주요 작업으로는, 아파트 평면도를 임의 기준이 적용된 규모의 시멘트 조각으로 입체화하고 디오라마로 재현하는 <배산임수> 시리즈와 <바닥의 높이> / 평면유형의 모양대로 뜯을 수 있게 가공이 된 조각적 변용이 가능한 책 <다른13가지> / 현대 도시 건물의 특징을 참고해 인쇄물을 제작한 뒤 건축 자체처럼 활용하면서 실제 대상의 외양을 그려내는 <면대면> 시리즈 / 책의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흐릿해지는 잉크의 양으로 거리와 하늘의 구조를 이야기한 <하늘의 구조> 등이 있다. 최근에는 작업이 보여질 때 장소와 작품이 맺는 배경의 연쇄 효과에 흥미를 가지고, '장소가 가상이 되는 순간'과 '공간을 소비하는 양상'을 시각화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인천아트플랫폼에서는 인천의 지형적 특성이 만드는 삶의 방식에 대한 리서치와 함께, '시간의 구축적 공간'을 주제로 페인팅 매체를 연구할 계획이다.

Kwak Eve has always had an interest in construction of life and the physical environment where people live. She has largely observed immobility and construction activities that stem from the shape of a building and deals with the media (painting, sculpture, books and printed matters) where a plane becomes a solid and vice versa so that the appearance can be sketched and behavioral variability can be discussed.

Her main works include *A Mountain to the Back, a River to the Front* series and *Height of the Bottom* aiming to turn a ground plan of an apartment house into multi-dimension cement pieces to which a specific standard is applied and reproduce it as diorama, *13 Different Things* that makes it possible to realize sculptural change through processing for plane-shaped stripping, *Plane Vs. Plane* series aiming to draw appearance of the actual subject through the use of architectural construction material after production of prints in reference to characteristics of a modern structure in a city, and *The Structure of the Sky* aiming to talk about the structure of the distance and the sky based on the quantity of ink that is gradually blurred as the pages of a book is turned. Recently, she is studying a method of visualizing 'the moment when a place becomes virtual' and 'patterns of use of space,' with an interest in linkage effects of background generated between display places and artworks.

At Incheon Art Platform, she will study the painting media with a theme, 'Constructional Space of Time,' along with research on a life style formed by geological characteristics of Incheon.





## 금혜원 KEUM Hyewon

keumhyewon@gmail.com  
www.keumhw.com

1979년 생, 서울 거주

Scene #16\_120×100cm\_디지털 피그먼트 프린트\_2015

Scene #16\_120×100cm\_digital pigment print\_2015

1979년 서울에서 태어난 금혜원은 사진매체를 중심으로 도시의 물리적이고 정서적인 환경과 그러한 환경으로부터 파생된 사회현상을 드러내는 작업을 발표해 왔다. 급속하게 변화하는 도시공간과, 지루하고 고독한 일상의 이면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는 현실을 드러내고 환기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는 주목 받지 못한 개인사와 공공의 기억을 연결하고, 현실과 허구를 조합하여 재구성하는 작업을 구상 중이다. 따라서 인천아트플랫폼 입주기간 동안에는 한국 근현대사 자료, 문학작품 등을 수집하고 발췌하여 이야기와 사진, 영상을 결합한 작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Born in Seoul in 1979, Keum Hyewon has created works that exhibit the physical and emotional environment of a city and social phenomena derived from the environment mainly using the photograph media. She has an interest in unveiling and calling attention to rapidly changing urban space and the obscure reality hidden by a boring and lonesome daily life. She is planning reconstruction by linking unheeded personal history and public memories and combining reality and fiction. Accordingly, she intends to collect and extract data on the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of Korea as well as literary works and proceed with artwork that combines stories, photos and videos during the period of residency at Incheon Art Platform.

## 김순임

### KIM Soonim

soonimee@yahoo.co.kr  
www.kimsoonim.com

1975년 생, 인천 거주



땅이 된 바다 - 콜당 2016\_가변설치\_인천 만석동에서 채집한 굴껍질, 면사, 철사, LED 조명\_2015  
Landed Ocean - Oyster Land 2016\_dimensions variable\_oyster shells from Mansukdong Incheon, cotton threads, wire, LED light\_2015

김순임은 각 지역의 자연과 그로 인한 사람의 이야기에 관심이 있다. 그 지역의 질척하고 깊게 쌓인 결들을 그곳의 자연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찾으려 관찰하고 발견하며 작업하는 작가이다. 그녀는 스스로 작가이자 직조자(weaver)라고 이야기한다. 발견된 이야기들을 각 지역 특유의 자연 오브제 및 공간과 엮어 설치, 조각, 영상, 사진, 퍼포먼스, 드로잉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김순임의 작업은 이렇게 그녀가 거주하는 지역에 기반해 그곳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성장한다. 거주하는 곳의 내외부 환경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흡수하여 표현하기 때문이다. 받아들인 이야기와 발견한 현상, 지역의 자연과 환경에 따라 소재를 선택하고 작업의 표현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녀는 인천에 정주하게 된 2017년, 기존에 실험했던 인천의 자연재료와 이야기를 심도 있게 발전시키는 것 이외에, 새로운 발견을 위한 관찰을 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인천아트플랫폼에서 2016년 처음 발표한 <땅이 된 바다 Landed Ocean> 작업의 표현방식을 어떻게 확장할 것인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인천의 염전과 다양한 지역에서의 자연미술 워크숍 또한 계획하고 있다. 김순임은 작가의 작업이 노동과 그를 둘러싼 자연현상 또는 환경과 어우러지고, 다시 관객의 행위와 반응으로 표현되어야 비로소 완성된다고 생각하므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실험을 계속할 것이다.

Kim Soonim has interest in the nature of various regions and the consequent stories about people. She observes, discovers and works to find local characteristics and stories in local nature and the faces of those who live in the region. She herself says that she is an artist and a weaver. She expresses the discovered stories in various ways such as installation, sculpture, videos, photos, performances and drawings in combination with natural objects having characteristic of each region. Kim's works are based on her residential area and evolve in a way that shows the area as they express the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 of the residential area and the stories of those who live there. She selects materials and determines a method of expression, depending on accepted stories, discovered phenomena, and local nature and environment.

When she moved to Incheon in 2017, she said that she would continue her observation for new discoveries in addition to in-depth development of natural materials and stories in Incheon that were experimented in the past. She plans to study how to expand a method of expression of *Landed Ocean* that was unveiled at Incheon Art Platform in 2016 for the first time and plans to hold a workshop on natural arts at a salt farm and other various areas in Incheon. As she believes that an artist's work can be finally completed only when it is expressed in behavior and response from audiences, and also when labor is harmonized with surrounding natural phenomena or environment, Kim will continue to conduct experiments to realize it.



## 라이트 티모 Timo WRIGHT

timo@timowright.com  
www.timowright.com

1977년 출생, 핀란드 헬싱키 거주

위로\_13분\_영화\_2017  
Solace\_13min\_film\_2017

티모 라이트는 핀란드 헬싱키에서 활동하는 영화 감독이자 미디어 아티스트이다. 그의 영화는 세계 30여 개의 영화제에서 상영되었다. 그의 작업은 대부분 정치적인 주제를 담고 있고 인종, 소비주의, 생태학, 죽음과 같은 문제를 다룬다. 작가는 영화를 만드는 한편 인터랙티브 설치 미술이나 사진 작업도 한다.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기간 중에는 E-스포츠에 관한 실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자 한다. E-스포츠는 게임을 전업으로 하는 젊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현상이다. 그는 어떻게 현실과 가상현실이 충돌하는지와 또한 가상현실의 팬덤(fandom)이 어떻게 생성되는지에 대해 관심이 있다.

Timo Wright is a filmmaker and media artist from Helsinki, Finland. His films have been shown at over 30 different film festivals around the world. His works are often political and handle issues of e.g. race, consumerism, ecology and death. Often they are films, but also interactive installations or photographs have been made. He is planning to work on an experimental documentary about e-sports. E-sports is a phenomena, where young people play games for living. He is interested in how virtual reality and reality collide, and how virtual fandom is created.

## 리 리우양 Liuyang LI

992070330@qq.com  
http://liliuyang.wixsite.com/liliuyang

1988년 출생, 중국 충칭 거주



플래핑\_240×1000×400cm, 가변크기\_전자응답기기, 커스텀 사운드\_2016  
Flapping\_240×1000×400cm, dimensions variable\_electronic welcome machine, custom sound\_2016

리우양 리는 1988년 중국 허난성에서 태어났으며 현재 충칭시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다. 2016년 쓰촨미술학원을 뉴미디어아트 전공으로 졸업하였고 멀티미디어 기술을 활용하여 인터랙티브아트, 비디오아트, 조각, 사운드아트 등의 프로젝트 및 라이브 쇼들을 기획, 연출하고 있다.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기간 중에도 멀티미디어 형식의 작업을 하게 될 것이다. 그는 외부 광고의 텍스트, 그림, 조명 등에 주목하는데, 그 안에 담긴 많은 양의 인간적이면서도 미학적인 정보들은 소비사회의 대중 문화를 드러내는 중요한 장치이기 때문이다.

인천에서는 외부 광고물들을 그 광고가 걸린 공간 및 환경에서 떼어내어 도시문화의 정보를 추출해내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작업은 외부 광고의 본래 목소리를 뒤집는 효과가 있다. 추출된 정보는 오디오와 조명 기술로 형태가 전환되고, 그 결과값이 전시공간에서 출력된다.

Liuyang Li was born in 1988, Henan, China, and currently lives and works in Chongqing. He graduated from Sichuan Fine Arts Institute majoring New Media Arts (Interactive Media Pathway) in 2016.

He directs in projects of interactive, video, sculpture, sound art, etc., using multi-media technologies. He and his team make artworks in form of audio-visual live shows. He is going to work with multi-media during the residency. He focuses on outdoor advertising texts, pictures, lightings, etc., which contain a large number of human and aesthetic information, since they are important manifestation of the mass culture in the context of consumerism. His final presentation of work in Incheon should be cutting off the relationship of the outdoor advertisement and its established place and environment to extract the slice information of city culture, inverting the original voice of outdoor advertising. He plans to use audio and lighting technology to control the information output at the exhibition space.



풍경\_227×870cm\_캔버스에 유화\_2016  
Landscape\_227×870cm\_oil on canvas\_2016

## 범진용 BEOM Jinyong

dada1645@nate.com  
[https://www.facebook.com/  
profile.php?id=100001738723272](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1738723272)

1977년 생, 인천 거주

범진용은 지난 몇 년간 꿈을 기록하고 관찰하며, 그것을 일기로 재현하고 그림으로 각색해 왔다. 그는 꿈속의 다중적인 인물들과 관계가 모호하고 경계가 불분명한 서사들을 조립하거나, 일관성 없는 사건들을 나열하여 밀도 끝도 없이 연이어지는 서사의 연쇄들을 만들어낸다.

그의 최근 작업은 일상에서 만난 풍경들을 마음 속에 응축된 심리적인 에너지와 밀착시키고 환각적인 장면이나 꿈속의 풍경을 중첩하여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실재하면서 부재한, 객관적이면서 주관적인, 현실도 꿈도 아닌 둘이 교차되어 하나의 이야기로 직조된 풍경이 나타난다.

인천아트플랫폼에서 진행할 작업들은 버려진 공원과 도시 하천을 무대로 하고 있다. 인적이 드문 산책로는 관리가 부족한 탓에 잡초들이 무성하게 ‘잘’ 자라있다. 방치되어 황량해진 공간과 공존하며 억척스럽게 질긴 생명력으로 성장해나가는 풀들이 온통 꿈을 대며 출렁이고 진동하는, 생이 가득한 풍경을 연출할 계획이다.

Over the past few years, Beom Jinyong has recorded and observed dreams, reproduced them in a journal and adapted them into drawings. He combines multiple figures in dreams and narratives where relations are ambiguous and boundaries are unclear, or uses inconsistent incidents to create a series of endless narratives.

His latest artworks focused on making landscape that he met in his everyday life get closer to psychological energy condensed in his mind, and on expressing hallucinatory scenes or landscape in dream in a redundant way. Accordingly, it is a real yet non-existent and objective yet subjective landscape where two things, which are neither reality nor dream, are intersected to weave one story.

The project to be performed at Incheon Art Platform has abandoned parks and urban rivers as its setting. Unfrequented walks are full of weeds due to a lack of management. He plans to produce a landscape filled with vitality where tenacious grass struggles for life, coexisting with an abandoned desolate space.

## 심승욱 SIM Seung Wook

ssim72@gmail.com  
https://www.facebook.com/seungwook.sim

1972년 생, 이곳저곳 거주



안정적 불안정 - 고립주의의 환상 속에서\_60×60×135cm\_아연도금강철, 알루미늄, 목재, 음향\_2016  
Stable Instability - Under the Illusion of Isolationism \_ 60×60×135cm\_zinc galvanized steel, aluminum, wood, sound\_2016

1972년 서울에서 출생한 심승욱은 홍익대학교와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 스쿨에서 조각을 전공하였다. 지금까지 10여 회의 개인전과 여러 기획전에 참여해왔다. 작가는 조각, 설치, 사진 등 다양한 시각매체를 통해 인간 욕구의 결핍과 과잉 속에서 경험되는 사회 현상에 주목한다. 표면적 안정 속에 비가시적으로 잠재해 있는 불안정, 타인에 대한 배타적 태도와 자기 보호 차원에서의 고립주의의 문제 등 시의성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재해석하여 작품으로 표현해 오고 있다.

인천아트플랫폼에서는 이곳의 장점인 타장르 예술과의 협업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 인천의 역사와 일상의 삶 속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구축 혹은 해체하면서, ‘과잉과 결핍 속에서의 욕구’ 또는 ‘안정적 불안정’이라는 테마로 큰 틀을 잡고 새로운 표현의 방법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

Born in Seoul in 1972, Sim Seung Wook graduated from Hongik University and the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majoring in sculpture. He has participated in more than 10 solo exhibitions and various special group exhibitions. The artist is paying attention to social phenomena experienced from deficiency or excess of human desires through various visual media, including sculpture, installations and photographs. He has reinterpreted and linked timely topics, while working with the themes such as instability invisibly latent in superficial stability, unfriendly attitude towards others and intentional isolation for self-protection. At Incheon Art Platform, he will seek the possibility of collaboration with artists in other genres, which is considered as the institution's advantage, and construct or deconstruct of various stories found in the history of Incheon and everyday life, and find a new method of expression within a large thematic framework characterized by 'desires amid excess and deficiency' or 'steady instability.'

## 안경수 AN Gyungsu



angyungsu@gmail.com  
www.angyungsu.com

1975년 생, 서울/경기 거주

전야\_360×230cm\_캔버스에 아크릴\_2016  
Eve\_360×230cm\_acrylic on canvas\_2016

안경수는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내외 레지던시 활동과 경험을 기반으로 매 장소의 풍경들을 작업의 영역으로 끌어들인다. 그는 풍경의 경계를 유심히 살피고 이렇게 발견된 장면의 막(layer)을 회화화하는 작업을 한다. 그는 ‘회화 표면의 물성과 원본(풍경)과의 불균형적 관계’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우리는 풍경의 경계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답을 찾고자 한다. 상시적으로 거주하는 장소의 경계성을 규정하고 경계의 안과 밖, 나아가 작가와 풍경 사이의 그림이라는 임의의 경계(막)를 통해서 대상에 대한 간섭을 시도하는 것은 물론, 그림과 풍경의 겹침으로 장면을 흔든다.

인천아트플랫폼에서는 다수의 문화가 섞여서 만들어진 인천의 독특한 도시성과 구조물을 리서치하고 이를 각각의 레이어로 나누어 회화 작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그 중 일부는 완성된 그림과 실제 풍경의 겹침을 시도하여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도시 내에 존재하는 경계로 들어가는 작가 특유의 방식이다.

An Gyungsu works in Seoul and Gyeonggi-do and has participated in many residency programs home and abroad. He brings the landscapes of every place into his artwork. He closely observes the boundaries of landscape and paints the layers of scenes found in this way. He asks a question about ‘unbalanced relationships between properties of the surface of painting and the original (landscape),’ and tries to find an answer to the question, ‘How do we define the boundary of landscape?’ He not only defines the boundaries of a permanent residence and attempts to interfere with the subject through the arbitrary boundary (layer) that pertains to the inside and the outside of the boundary and a drawing between an artist and landscape, but also shakes scenes by overlapping a picture with landscape.

At Incheon Art Platform, he plans to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Incheon as a city and structures in the city formed with a mixture of various cultures, and use them as layers for his painting works. Some of them will be recorded as photos and videos while completed paintings will be overlapped with actual landscapes. This is the artist’s unique method of entering the boundaries of the city.



## 안상훈 AHN Sanghoon

sahooahn@gmail.com  
www.sanghoonahn.com

1975년 생, 한국/독일 거주



너의 특별한 하루\_130×140cm\_캔버스에 유화와 아크릴\_2016  
Your Special Day\_130×140cm\_acrylic and oil on canvas\_2016

안상훈은 서른 나이에 낯선 독일로 떠나 10년 넘는 시간을 지내고 2017년, 오히려 낯설어진 한국 땅에서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한다. 작가는 자신에게 회화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꾸준히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어떤 정해진 해답을 기대하지는 않는다.

그는 가벼움과 진중함 사이에서의 회화적 긴장감을 유지하고자 하며, 항상 그림 그리는 즐거움을 지니면서 머물지 않고 흐르기 위해 작업한다. 그래서 안상훈의 회화는 언제나 진행형이다.

인천아트플랫폼에서는 최근 작가의 작업에 자주 등장하는 드로잉 요소들을 회화적으로 확장하고, 이를 통해 과정과 결정이 상호 작용하는 작가 본인의 '회화' 혹은 '회화하기'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 나가고자 한다. 프로젝트 <롤링 드로잉>을 통해 유학생이었던 그에게 이별과 만남, 슬픔과 설렘의 공간이었던 인천공항의 이미지를 인천과 베를린을 왕래하는 우편 드로잉으로 실현하면서, '서서히 완성되는 회화'를 실험해 보고자 한다. 회화의 시간과 장소를 확장해 보려는 시도이다.

Ahn Sanghoon left for Germany, a strange land to him, at the age of 30 and lived there for more than 10 years. Now in 2017, he is back to his homeland to prepare for another beginning. The artist constantly asks questions about what a painting means to him, but does not expect any fixed answer.

He tries to maintain pictorial tension between lightness and graveness and works to flow instead of staying in a feeling of pleasure of painting. That is why Ahn's paintings are always in-progress.

At Incheon Art Platform, he will pictorially expand drawing elements that frequently appear in his latest works and continue to ask questions about his 'paintings' or 'painting' through which processes interact with decisions. In his project *Rolling Drawing*, he attempts to expand the time and space of 'a slowly completed drawing,' realizing the image of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that was a place of breakup, reunion, sadness and excitement for him when he was an international student. In the work, he plans to devise a mail-drawing shuttling between Incheon and Berlin.





## 장서영 CHANG Seo Young

saeng02@gmail.com  
www.changseoyoung.com

1983년 생, 서울 거주

영원히 반복해서 익사하는 곰 이야기\_16분\_단채널 영상\_2013

A Story of a Bear, Who Drowns Forever, Over and Over\_16min\_single channel video\_2013

장서영은 영상, 텍스트, 조각을 통해 불투명한 사회 구조 안에서 없는 것처럼 취급되는 것들, 비가시적이기에 무효화되는 것들의 존재 형태와 형식을 다룬다. 이를테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없는 취급하거나, 반대로 없는 것을 있는 착하는 상황을 만든다. 있음을 없음으로, 또 없음을 있음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사회적 인식과 인정, 사회적 가시성과 관련이 있다. ('아무도 나를 모른다면 나는 존재한 적이 없다.') 작품 속 주인공들은 신체, 이름, 기억, 생산성, 정체성 등 특정 요소가 결여된 상태로 등장하며, 이렇게 누락되거나 생략된 조건에 의해 존재하지도 부재하지도 않는 애매한 상황에 놓인다.

인천아트플랫폼에서는 예술가의 작품 생산의 의미를 사회 안에서의 생산성이라는 개념과 연결지어 탐구해보고자 한다. 노동하지 않는, 따라서 사회에서 비가시적인 신체에 대한 탐구가 주를 이룰 것이다. 사회의 구성요소이지만 '건강하고 생산적인' 사회를 구성하지는 않는, 있지만 없는 신체가 간신히 존재하는 형식과 형태에 대해 연구할 계획이다.

Through videos, texts and sculptures, Chang Seo Young deals with the form and type of existence of ignored things and invalid things due to invisibility in an opaque social structure. For example, she causes situations where clearly existing things are ignored, or non-existing things are treated as existing. Turning the existing into the non-existing, or vice versa is related to social perception, recognition and social visibility. ('If no one knows me, I've never existed.') Main characters of her works appear without specific elements such as the body, name, memory, productivity and identity, which produce ambiguous situations where they are neither existing nor non-existing due to omission or deletion.

At Incheon Art Platform, she will explore the significances of production of artworks created by artists in connection to the concept of productivity within the society, largely dealing with the body not laboring and invisible in the society. She plans to study the components of a society that are not 'healthy and productive components,' and patterns and forms in which existing yet non-existing body barely exists.

## 정석희 JUNG Seok-Hee

atriumthea@naver.com

1964년 생, 서울 거주



뉴\_8분 18초\_78컷으로 구성된 애니메이션 영상\_2016  
Swamp\_8min 18sec\_animation video of 78 pieces\_2016

정석희는 서양화를 전공했고, 뉴욕 공대 대학원에서 커뮤니케이션 아트를 전공했다. 2016년 <시간의 깊이> (OCI 미술관, 서울)를 포함하여 13회의 개인전을 개최하였고, 2015년 <무심> (소마드로잉센터, 서울) 등 60여 회의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그의 작업은 인간의 존재론적이거나 실존적인 서사가 강한 내용에서부터 현실과 비현실, 갈등과 대립 등 인간이 인간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까지 폭 넓은 관점을 담는다. 이러한 작업은 드로잉 또는 회화가 움직이며 변화하는 영상회화나 영상드로잉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인천아트플랫폼에서는 두 작품의 영상회화 프로젝트와 한 작품의 영상드로잉 작업을 포함하여 회화작업과 드로잉 작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영상회화와 영상드로잉 작업은 수없이 많은 이미지를 그리고, 촬영하고, 다시 그리는 과정으로 구성되는데, 작업의 속성 상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과정과 결말이 예측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After majoring in western painting, Jung Seok-Hee studied communication arts at the Graduate School of New York Institute of Technology. He held 13 solo exhibitions including *The Depth of Time* (OCI Museum, Seoul) in 2016 and participated in 60 group exhibitions including *Detachment*(SOMA Drawing Center) in 2015.

His works deal with broad perspectives ranging from ontological or existential narratives to various matters originated from human relationships featuring 'reality and unreality' and 'conflicts and confrontation.' The artworks have types of animated video with pictures or drawings in which drawings or pictures change and move.

At Incheon Art Platform, he plans to produce painting and drawing works, including two video painting projects and one video drawing. The video painting and video drawing works consist of the process of drawing, shooting and re-drawing of numerous images, taking a lot of time due to their characteristics, and often difficult to predict the process and the conclusion.

## 정아롱 CHUNG Arong



arongchung@naver.com

1981년 생, 인천 거주

숲속의 오페리아와 유니콘\_130×162cm\_캔버스에 유화\_2016  
Ophelia and an Unicorn in the Woods\_130×162cm\_oil on canvas\_2016

정아롱은 연금술사가 평범한 돌을 금으로 변신시키듯 예술작품이 지닌 신비롭고 마술적인 힘을 믿으며 개인사적 이야기와 현실 너머에 있는 기억, 환상, 또는 상상이 뒤섞인 세계를 그린다. 회화를 비롯하여 에그 템페라와 메탈 포인트 드로잉과 같은 고전기법을 이용해 신비로운 세계의 단편들을 그린다. 최근에는 과거 마녀술(witchcraft)에 사용되었던 상징 기호들에 관심을 갖고 그에 관한 도상과 기호를 회화적 이미지와 결합한 일련의 추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아트플랫폼에서는 2017년에 있을 개인전과 여러 그룹전 준비에 전념할 계획이다. 기존 회화 양식과 함께 에그 템페라 기법을 활용한 작업, 현재 진행 중인 40여 개의 마녀술 상징 기호에 관한 일련의 추상적 회화 작업, 그리고 현실과 환상을 넘나드는 이야기를 설치 작업을 통해 보여주고자 한다.

Chung Arong believes that artworks have mysterious and magical power as if an alchemist turns an ordinary rock into gold, and paints a world where stories containing personal histories are mixed with memories, fantasy or imagination going beyond the reality. She draws fragments of a mysterious world using classical methods such as egg tempera and metal point drawings. With an interest in symbolic signs that were used in witchcraft in the past, she is recently implementing a series of abstract artworks combining icons and symbols with pictorial images.

At Incheon Art Platform, she will concentrate on preparing for a solo exhibition and various group exhibitions to be held in 2017. She intends to show artworks based on egg tempera painting technique, a series of 40 on-going abstract paintings about witchcraft symbols and stories accessing the reality and fantasy through artistic installations.

## 정혜정 JUNG Haejung

hochijoa@naver.com  
www.hjjung.com

1986년 생, 인천/서울 거주



지도바깥\_가변크기\_3D모델링\_2017  
Off the Map\_dimensions variable\_3D modeling\_2017

정혜정은 머물렀던 장소에 대한 감각에서 출발하여 그 장소와 얽혀있는 이야기, 소문들, 역사적 사료, 주변 환경들을 조사하고 그것을 주로 '신체'를 통해 재해석하는 작업을 한다. 그렇게 기존의 세계에 대한 법칙들을 뒤엎들어보고, 재목록화시켜서 새로운 규칙들로 재배열하는 것에 관심을 둔다. 그럼으로써 개인과 세계 사이에는 새로운 틈이 생기고 그 균열과 틈을 통해서 세계는 무한하게 변주될 가능성을 갖게 된다. 이 과정은 사람들이 늘 당연시하는 반짝거리고 매끈하게 다듬어진 외관 아래 숨겨진 것들을 보는 행위와도 같다. 그럼으로써 정혜정의 작업은 외부가 규정하는 말끔한 서사를 깨트리고 도시 속 개인의 권리를 되찾는 행위를 실천한다. 인천아트플랫폼에서는 인천의 지역적 특성 안에서 지역민들, 작가들과의 협업 작업을 시도하고 레지던시 경험이 녹아 든 작품들을 제작할 계획이다.

Jung Haejung starts with sensations about places where she stayed to study related stories, rumors, historical records and surrounding environment, and reinterprets them through the body. She has an interest in establishing new rules by ignoring principles for the existing world, and recataloging them. In the process, new crevices occur between individuals and the world, and the world will have the possibility of endless variation through such crevices and clefts. This is like seeing things hidden under the well-polished glittering and smooth appearance that people take for granted. In so doing, Jung's artworks break neat narratives defined by outsiders to recover individuals' rights in a city.

At Incheon Art Platform, she will attempt to collaborate with local residents and artists using regional characteristics of Incheon, and create artworks based on residency experience.

## 푸이에 델핀 Delphine POUILLÉ



delphinepouille@gmail.com  
www.delphinepouille.com

1979년 출생,  
프랑스 파리/오스트리아 빈 거주

민첩함 #2\_31×17×16cm\_섬유, 우레탄 폼, 나무막대, 접착제, 아이소보드(그린), 찰흙\_2016  
Agility #2\_31×17×16cm\_Fabric, expanding foam, wooden sticks, glue, green foam, modeling clay\_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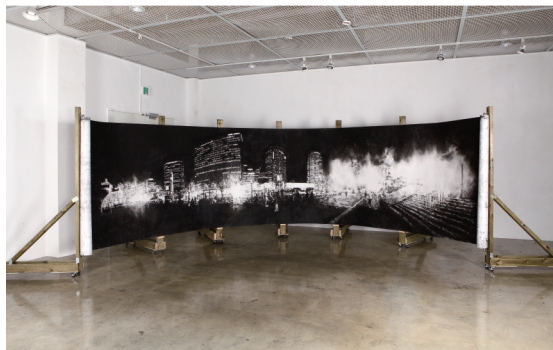
델핀 푸이에에는 1979년 프랑스 클레르몽페랑에서 태어났으며 현재는 주로 프랑스 파리와 오스트리아 빈에서 활동한다. ‘생명’과 ‘몸’이라는 주제는 그녀의 조각과 드로잉 작업에서 중심점에 놓인다. 그녀는 실험실에서나 벌어질 만한 방식의 실험을 통해 인공적이고 대안적인 몸을 만들어 낸다. 그 몸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진화하고 일종의 ‘의학적’인 유지 보수를 필요로 한다. 인천아트플랫폼에서는 인천에서의 경험이 녹아든 드로잉 시리즈를 선보이고자 한다. 그녀가 인식한 인천과 주위 환경의 분위기, 문화, 풍경, 건축을 드로잉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 드로잉들은 디지털 작업과 사진적 프로세스를 거쳐 단편영화로 제작되어 도시의 초상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Delphine Pouillé was born in Clermont-Ferrand (France) in 1979. She lives and works in Paris (France) and Vienna (Austria). The living and the body are the central points of her sculptures and drawings. She creates artificial and alternative bodies through a laboratory'esq method of experimentations. They are constantly evolving with time and require a kind of "medical" maintenance. During the residency she plans to realize a series of animated drawings based on the experiences she will have in Incheon. She wants to transform her perceptions of the atmosphere, culture, landscapes and architecture of the city and its environment into drawings which by digitalization and a photographic process will become short movies and city portraits.

## 황경현 HWANG Gyunghyun

howng90@naver.com  
http://hwanggyunghyun.blogspot.kr

1990년 생, 인천 거주



아치형태의 드로잉\_150×600cm\_켄트지에 콩테\_2016  
Drawing Arch\_150×600cm\_conte on kentpaper\_2016

황경현은 목원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한 후, <Drawing Room>(경기도미술관, 2017), <Drawing Dome>(스페이스아도, 2016), <시대역마>(KSD갤러리, 2016), <흑백공간>(대안공간 눈, 2015), <흑백군중>(갤러리 1898, 2015) 등의 개인전을 비롯하여, <뉴드로잉 프로젝트>(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2017), <보물섬>(경기창작센터, 2016), <감각적현실>(시민청갤러리, 2016) 등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하였다. 작가의 서사적 구조 안에서 시도되는 다양한 매체의 드로잉들이 그의 주 작업을 이룬다.

인천아트플랫폼에서는 회화작업에 있어 재료의 물성과 구도, 대상을 재해석하는 과정 등 화면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중간매체를 활용하는 프로젝트 등으로 작업 활동 영역도 다양하게 확장해 보고자 한다.

After graduating from College of Fine Arts at Mokwon University, Hwang Gyunghyun had solo exhibitions, including *Drawing Room*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2017), *Drawing Dome* (spaceADO, 2016), *Sidaeyekma* (KSD Gallery, 2016), *Black and White Space* (Alternative Space NOON, 2015) and *Black & White Audience* (Gallery 1898, 2015), and participated in group exhibitions, including *New Drawing Project* (Yangju City Chang Ucchin Museum of Art, 2017), *A Treasure Island* (Gyeonggi Creation Center, 2016) and *Sensible Reality* (Seoul Citizens Hall Gallery, 2016). His artworks are mostly drawings based on the diversified media attempted in the artist's narrative framework.

At Incheon Art Platform, he will continue to study scenes featuring the process of reinterpreting material properties, composition and subjects with regard to painting works, and expanding the area of work in many ways through projects where intermediate media are used.



## 황문정 HWANG Moonjung

moonig9787@gmail.com  
www.moonjunghwang.com

1990년 생

재활용조경\_가변크기\_생활 오브제, 식물, 테이프, 나무\_2016  
Recycled Gardening\_dimensions variable\_life objects, plants, tape, tree\_2016

1990년 인천에서 태어난 황문정은 서울대학교에서 조소를 전공하고 글래스고 예술학교(Glasgow School of Art)에서 순수예술 석사학위(Masters of Letters of Fine Art Practice)를 취득하였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도시의 변두리에 머무른 적이 많다. 도시의 계획된 풍경을 동경한 적도 있으나, 외곽에서 펼쳐지는 예기치 못한 공간의 변칙들, 이야기들에 더욱 눈이 간다. 그녀에게 도시는 살아 남으려는 옛 것과 밀려들어오는 새 것의 사이에서 흥미로운 충돌이 일어나는 곳이다. 특히 괴물처럼 불어나는 건축물들과 그 틈바구니에 섞여있는 자연물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는 그녀를 매료시키는 것들 중 하나다.

인천아트플랫폼에서는 도시의 옛 모습을 목격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해 리서치하고 그와 연관된 오브제들을 수집할 것이다. 동시에 위화감이 느껴질 정도로 빠르게 변화한 장소들을 탐구할 예정이다. 그리고 공간과 공간, 사람과 사람, 물질과 물질이 맞닿아 뒤엉키는 ‘무허가 도시 조경’을 ‘설계’해 보고자 한다.

Born in Incheon in 1990, Hwang Moonjung graduated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majoring in sculpture, before graduating from the Glasgow School of Art (MLitt Fine Art Practice).

Since childhood, she has often lived on the outskirts of a city. She once longed for planned landscape of urban downtown but began to have more interest in irregularities and stories in unexpected spaces in the outskirts. She thinks that a city is a place where old things that struggle to survive have an interesting skirmish with new things rushing into. In particular, she is fascinated with stories created by monster-like expanding architectural structures and natural objects mixed in crevices.

At Incheon Art Platform, she will conduct research on places that show the vestiges of the city, and collect related objects. At the same time, she will explore places that experienced changes so rapidly that a sense of incongruity is felt. She also plans to design the 'landscape of an unauthorized city' where spaces, people and materials touch each other to get entangled.



## 댄스컴퍼니 명 Dance Company MYUNG

최명현 CHOI MyungHyun  
권선화 KWON SunHwa  
이병진 LEE ByungJin  
김태희 KIM TeaHee  
고일도 KO ILDo  
김민철 KIM MinCheo

dancer1983@nate.com  
www.facebook.com/  
dancecompanyMyung

2010년 창단, 인천을 기반으로 활동



시간은 무게다\_70분\_퍼포먼스\_2014  
The Time Is Weight\_70min\_performance\_2014

댄스컴퍼니 명은 예술표현 활동을 통해 세상의 그늘진 곳까지 빛을 밝히는 등대와 같은 존재가 되고자 활동한다. 그들은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하는 진정성 있는 작업을 추구하며, 문화예술로써 모든 사람이 함께 즐겁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실현하고자 한다.

댄스컴퍼니 명은 구성원 모두가 안무가와 무용수의 역할을 바뀌가면서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는 창작집단 형태로 운영된다. 극장형식의 작품 제작 이외에도 통상적인 공연형식에서 보다 자유롭고 다양한 공간실험과 영상 작업을 통하여 공연의 일시성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한다.

올 한해 단체의 주요 진행 계획으로는 <월간무용>, <끝나지 않는 안무프로젝트>, <댄스필름 제작> 등이 있으며, 공연의 일시성을 보완하기 위해 고정 관객 이외에도 불특정 다수와의 흥미로운 활동을 통하여 보다 많은 관객들과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자 한다.

Dance Company Myung aims to serve as a lighthouse that lightens the darkness of the world through artistic expressive activities. They pursue authentic artistic works from the heart instead of the brain and try to realize a warm-hearted society where people find their pleasure in culture and arts.

Dance Company Myung is operated as a creative organization where all members serve as choreographers and dancers before changing their roles to maintain horizontal relationships instead of vertical relationships. Efforts are made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temporality of performances through more diversified free-spirited spatial experiences and video works departing from conventional performances instead of being preoccupied with theater-based productions.

This year, they plan to issue *Monthly Dance*, and produce *Endless Choreography Project* and *Dance Film Production* and make various attempts to communicate with more audiences through interesting activities conducted together with regular audiences and an unspecified number of the general public so that disadvantages originated from the temporality of performances can be complemented.



박승순

PARK Seungsoon



phonicspark@gmail.com  
www.seungwookpark.com

1985년 출생, 서울 거주

아쿠아포닉스 V2\_70×70×70cm\_사운드 설치 (PVC 파이프, 플로우레이트센서)\_2015  
AQUAPHONICS V2\_70×70×70cm\_sound installation (PVC pipe, flow rate sensor)\_2015

박승순은 뉴미디어 콘텐츠 크리에이터이자 전자음악가 라디오포닉스(RADIOPHONICS)로 활동 중이다. 콜렉티브 '아이디언(IDEAN)'의 공동 설립자이기도 하다. 그는 음악을 매개로 인간이 우주 또는 자연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 및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2010년, 점과 우주를 주제로 한 첫 번째 작품 <Cosmos>를 시작으로, <Nexus>, <Nexus Remix>, <Life Particles>, <W.W.W.> 등 전자음을 기반으로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사운드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빛과 소리를 하나의 파동으로 간주하여 이를 매체나 공간에 투영하는 방식을 탐구하고 있다. 물의 속성을 활용하여 음악을 연주하는 인터페이스 <AQUAPHONICS> 시리즈, 소리와 빛을 매개로 한 인스톨레이션 <CHROMATIC SCAPE>, 물리 또는 기하학적 개념을 도출하여 완성한 오디오/비주얼 아트웍 <PHASE> 등 새로운 방식의 음악 창작 및 감상 모델을 개발 및 제안하고 있다. 이외에도 집필, 강연, 워크숍 등 음악을 기반으로 한 전방위적 작업을 지속하며 자신만의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해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개인 연구 및 작업의 목적으로 딥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해 풍경 이미지를 분석하고 이에 적합한 소리를 자동으로 재생하는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인천아트플랫폼에서는 인천의 현재 풍경 이미지와 소리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컴퓨터로 학습시켜 일종의 '인공지능 기반 사운드스케이프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응용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사운드 스케이프 작업 및 퍼포먼스 등을 개발함과 동시에 '인공지능'에서 발생 가능한 오류들을 병치하여 인간과 컴퓨터가 소리 풍경을 인지 또는 감상하는 메커니즘의 한계점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Park Seungsoon is working as a new media contents creator and electronic musician RADIOPHONICS. He is also a co-founder of collective 'IDEAN.' He has studied and worked on a method enabling people to interact with the universe or the nature through music. Starting with his first work *Cosmo* on the theme of dots and the universe in 2010, he aims at experimental and creative sound based on such electronic sounds as *Nexus*, *Nexus Remix*, *Life Particles* and *W.W.W.* Regarding light and sound as a particular wave, he has examined a method of projecting it into the media or spaces. He is developing and suggesting such new methods of creation and appreciation of music as *AQUAPHONICS* series, an interface where music is played through the use of properties of water, *CHROMATIC SCAPE*, an installation where sound and light act as the medium, and *PHASE*, an audio/visual artwork completed through introduction of physical or geometric concepts. In addition, he is establishing his own independent domain while proceeding with omnidirectional works on music based on authorship, lectures and workshops. For the purpose of personal research and project, he is presently developing a system that analyzes landscape images and automatically plays appropriate sounds, using deep learning algorithms. At Incheon Art Platform, he plans to collect the present landscape images and sound data to be learned by a computer, and build an 'AI-based sound scape system.' By doing this, he will develop a new applicable type of sound scape method and performance, identify errors that might occur in AI, and talk about the limitations of mechanism where human beings and computers perceive or appreciate sound landscape.

## 서영주 SEO Youngjoo

ojoodog@gmail.com  
www.facebook.com/sseojo

1980년 출생, 인천/서울 거주



본 공연: 여기에서\_60분\_퍼포먼스 영상\_2016  
BORN PLAY: In Here\_60min\_video of performance\_2016

서영주는 한 사람의 배우이자 행동하는 자(an actor)로, 자신을 대변하는 인형을 만들고 이를 움직이는 작업을 한다. 하지만 동시에 그 인형이 그녀를 움직이고, 춤추고, 노래하게 하며 타인과 만나게 하기도 한다. 그녀는 일상 속에 맞닥뜨린 벼랑 끝이나 한계 지점에서 관찰한 이미지들을 무대 위에서 인형을 매개로 표현한다. 이러한 표현에는 '낡은 모두가 추락하지만, 다시금 모두가 새롭게 피어나 춤사위를 이룬다'는 극복과 승화의 염원이 담긴다. 인형과 배우가 교감하는 퍼포먼스, 관객의 참여 움직임, 영상과 소리 등으로 보여주는 이미지 극을 시도하며, 의식적인 몸짓을 통해 무의식적인 바람인 '추락하지만 곧 비상하여 만개(滿開)'하는 과정을 그리고자 한다. 인형과 사람과 놀이가 만난 공연은 복합적인 예술 형식이 혼합된 유희로서 기능한다.

인천아트플랫폼에서는 공연을 영상으로 촬영하고 재구성함으로써 무대 위의 행위를 다각도로 담아 보일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또한 공연의 주요 구성 요소인 인형을 포함한 조형물을 제작하고, 그간의 퍼포먼스의 흔적을 담은 전시와 공연을 영상으로 제작 및 재편집하여 설치 등의 형식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Seo Youngjoo is a performer and actor who creates dolls representing her and moves them. However, the dolls simultaneously make her move, dance, sing and meet with others. She expresses images observed on the edge of a cliff or at a point of limitation faced in everyday life through actions based on dolls on a stage. These expressions contain a wish for conquest and sublimation that lead to the sentence, 'All outdated things collapse but everything is reborn to create new dance moves again.'

She attempts to realize image dramas featuring performances where dolls respond to performers, participatory movement on the part of audiences, videos and sound in addition to the process where unconscious wishes crash in through conscious moves before soaring to full bloom. Performances where dolls, people and plays meet with one another can be implemented as a game mixed with a complex art form.

At Incheon Art Platform, she intends to explore a new possibility to exhibit actions on a stage from various angles by filming and reconstructing performances. She also plans to create artworks that include dolls, the main components of a performance, and produce and re-edit a video containing the traces of exhibitions and performances before installing them.



창조경제\_연극\_2015  
Creative Economy\_theater\_2015

## 앤드씨어터 A.N.D. Theatre

(Analog and Digital Theatre)

전윤환 JEON Yoonhwan, 고희진 KO Hongjin

권근영 KUON Gunyoung, 강문주 KANG Moonjoo

신아리 SHIN Ahri, 조영 JO Yeong

전민호 JEON Minho, 서현민 SEO Hyeonmin

홍혜진 HONG Haejin, 이효진 LEE Hyojin

Jhero21c@naver.com

www.andtheatre.com

2008년 창단, 서울과 인천에서 활동

앤드씨어터는 2008년 공연 형식의 실험과 지속 가능한 작업으로서의 예술 활동을 위하여 창단되었다. 아날로그적 감성과 새로운 상상력으로 세상과 관객 사이의 이음새가 되고자 한다. 앤드씨어터는 연극이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들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연극인으로서 무수히 많은 사회적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지만 그렇기에 더욱 이 시대의 가장 첨예한 문제를 다루는 연극 만들기를 지향한다. 감각하는 것들을 재료화하고 자신의 몸과 개인 삶의 서사를 극장으로 옮겨 놓는 ‘뉴 다큐멘터리’ 연극에 대한 실험을 지속하고 있다.

인천아트플랫폼에서는 존재의 이유를 파헤치는 작업들, 가려진 진실을 드러내는 작업들, 지속해야 할 가치를 공유하는 작업들, 세상의 부조리함을 고발하는 작업들을 해나갈 것이다. 재생과 변화, 연대와 공존을 위해 비판과 성찰을 중요한 도구로 삼는다. 기존의 작업들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많은 예술가들과의 협업과 교류를 꾀한다. 인천이 젊은 아티스트들의 연대로 활기 넘치기를 기대한다.

A.N.D. Theatre was organized to conduct artistic activities featuring performance-based experiments and sustainable artworks in 2008. It intends to serve as a joint between the world and audiences through analogic sensibility and new imagination. A.N.D. Theatre believes that theatrical drama can make the world beautiful! It finds it impossible for contemporary theatrical actors to be free from numerous social problems, and for this reason, it pursues to create theatrical dramas dealing with the most disputed issues of the time. It continues to conduct experiments on ‘new documentary’ drama where living things are used as materials, and one’s body and life are expressed at a theater.

At Incheon Art Platform, they will delve into reasons for existence, unveil the hidden truth, share values to be sustained and accuse absurdity of the world. They will consider criticism and introspection as important tools to realize revival, change, solidarity and coexistence. They pursue to stabilize the existing projects and conduct collaboration and exchange with many artists, and hope that Incheon will be filled with vitality thanks to young artists joining together.



## 손송이 SON Songyi



floatingclouds.press@gmail.com  
http://floatingcloudspress.tistory.com

1986년 출생

전시\_《비인칭적 삶》\_2016  
Exhibition\_Impersonal Life\_2016

손송이는 철학과 미술이론을 전공하였다. 전시 <비인칭적 삶>(2016)과 스크리닝 및 토크 행사인 <분더캄머: 동남아시아 실험영화의 방> (2016)를 기획했다.

인천아트플랫폼에서는 인천에 소재한 신고전주의적 건축물들의 역사와 특성을 살피고, 이 같은 건축 양식이 개항 이후의 식민 경험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 연구해 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현재에는 그러한 양식의 건축이 어떻게 재생산되고 있으며, 어떻게 주민들 및 방문객들에게 이해되고 있는지도 조사해볼 계획이다. 또한 되도록 규칙적으로 생활하려고 노력하면서, 틈틈이 인천 곳곳을 걸어보려고 한다. 개별 건축의 외관과 양식, 역사, 위치, 건축가 등에 대한 리서치뿐만 아니라 관련 작업을 하는 작가들에 대한 조사도 같이 병행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연구 결과를 전시를 매개로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볼 계획이다.

Son Songyi majored in philosophy and art theories. She planned *Impersonal Life*(2016), an exhibition, and *Wunder Kammer: A Room of Experimental Films in Southeast Asia* (2016), a screening program and talk event.

At Incheon Art Platform, she intends to examine history and characteristics of neoclassical architectural structures located in Incheon and explain correlations between the architectural methods and colonial experiences after the opening of a port to outsiders. Furthermore, she plans to investigate how such an architectural style is being reproduced and understood by residents and visitors. In addition, she tries to lead a regular life as much as possible, and walk around Incheon whenever possible. While conducting research on appearances of individual architectural structures, construction methods, history, location and architects and survey on related artists, she plans to give a deep thought into how to properly deliver the research results via exhibitions.

## 이정은 LEE Jeongeun

but818@hanmail.net

1975년 출생, 서울/경기/인천 거주 및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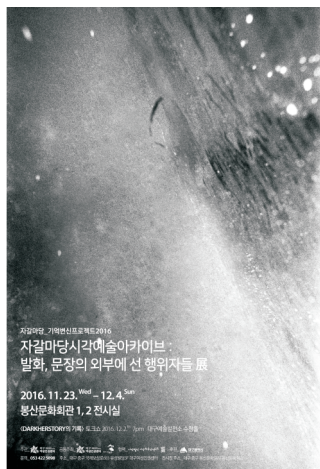
공공미술프로젝트\_《로맨스가 필요해》\_2013  
Public art project\_Finding Romance\_2013

이정은은 미술이론을 전공하였고 현재는 전시 및 프로젝트 기획과 비평작업을 하고 있다. 마을미술프로젝트 사무국, 경기문화재단 평택사업추진단(안정리 마을재생 사업) 등에서 일했고, <로맨스가 필요해>라는 프로젝트를 기획한 바 있다. 그동안 주로 공공미술, 기존 전시공간을 벗어난 프로젝트, 생활 속 미술 등에서 기획 및 비평의 역할로 참여해 왔다. 한국의 사회문화적 상황과 미술의 반응에 대해 두루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술 내부의 담론과 사회 및 제도라는 미술 외부의 논리가 만나는 지점에서 그간의 문화정책이 어떻게 형성되고 전개되었는지를 연구하고 있다.

인천아트플랫폼에서는 문화정책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문화부 및 관련 제도 신설 이후에 등장한 작가 지원제도의 전개에 대한 비평적 기술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예술가의 여행을 주제로 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 인천의 섬 굴업도를 여행하는 과정을 작업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관객을 만나고자 한다.

Lee Jeongeun majored in art theories and is presently engaged in planning exhibitions, projects and criticism. She worked at the curatorial office of Maulmisul Art Project and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Pyeongtaek Branch (Anjeong-ri Village Regeneration Project), etc., and planned a public art project, *Finding Romance*. As a curator and critic, she participated in public art projects, art projects that are held beyond the existing exhibition space, and projects showing arts in everyday life. She is interested in socio-cultural situations and responses in the art circles in Korea and recently studies how cultural policies have been developed and performed at the time when artistic discourses cross non-artistic logics such as society and institution.

At Incheon Art Platform, she plans to focus on critical technology with regard to support system for writers that appeared after introduction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related institutions as a part of efforts to study cultural policies. In addition, she plans to conduct a project on the theme of 'an artist's travel.' She intends to take a process of taking a trip to Guleop Island in Incheon as a project and meet with audiences in the process.



## 최윤정 CHOI Yoonjung

pamie1110@gmail.com  
http://choiyoon.blogspot.com  
www.facebook.com/choiyoon

1978년 출생, 서울 거주

전시\_《자갈마당 시각예술 아카이브 : 발화, 문장의 외부에 선 행위자들》\_2016  
Exhibition\_Visual Art Archive on Jagalmadang as Red-light District; Doers Outside the Sentence \_2016

최윤정은 국문학과 미학을 전공하였고, 광주 매개공간미니리 큐레이터, 대구미술관 전시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독립큐레이터이자, 자주출판공터의 에디터, 대구대학교 겸임교수로 활동 중이다.

그녀가 주로 집중하고 있는 주제범위는 역사적 문맥\_발견된 현재로서의 '지역성'이다. 연구과제는 역사\_생태\_풍토\_문화원형\_공동체에서 출발하여, 그 속에서 생성된 '특수한 삶'의 양태와 사회적 관계를 발견하는 일이다. 연구를 토대로 주제를 선정하고 실천의 방법을 고안하는 큐레이팅을 지향하고(매우 선호하고) 있다.

인천아트플랫폼에서는 지난 10년간의 활동들을 맥락화하고, 현재와 이후에 특화해 나갈 큐레이팅 연구에 집중할 예정이다. 실천방식은 각 주제별 '인터뷰 프로젝트'와 자료 및 문헌연구를 통한 텍스트 작업이며 이후 '출판' 연계도 고려하고 있다. 동시에 이번 기회에 '인천'의 지역성과 문화지형도를 또 하나의 연구작업으로 심도 있게 훑을 예정이다.

Choi Yoonjung majored in Korean literature and aesthetics and served as a curator at Mediate Space Minari Gwangju and leaded Exhibition Team of Daegu Art Museum. Currently, she is working as an independent curator, an editor of Publishing House Gongteo and an adjunct professor at Daegu University.

Theme on which she mainly focuses is locality in the historical context - the discovered present 'locality'. Her study starts with history, ecology, natural features, cultural prototype and community, and finds the patterns of a 'special life' and social relations in it. She aims at or greatly desires such curating that selects a theme and devises how to act based on the study.

At Incheon Art Platform, she plans to contextualize activities conducted for the past 10 years and concentrate on studying a special and unique curating in the present and the future. Action method is based on 'interview project' by theme and text work through research on data and literature, and linkage to 'publishing' is taken into account. At the same time, she seriously considers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cultural mapping of Incheon as another research project.

## 쿠로다 다이스케 Daisuke KURODA

6~8월 Jun-Aug

일본 요코하마뱅크아트1929 교류 작가

Exchange Artist from BankART1929, Yokohama, Japan



eihnx@yahoo.co.jp

<https://sites.google.com/site/kurodanosaito/>

1982년 출생, 일본 히로시마 거주

동풍\_200×400×600cm\_선풍기, 나무\_2014

Dongfeng\_200×400×600cm\_electric fans, wood\_2014

쿠로다 다이스케는 최근 쓰시마섬과 한국에서 현장 연구를 진행하면서 많은 전시회를 관람하거나 레지던시들을 방문한 바 있다. 그는 지리학적 특징과 문명과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 이미지와 전자기기를 재료로 사용하여 키네틱 설치미술 작업을 한다. 관람객의 몸 전체를 덮을 정도로 큰 규모의 작업들은 관람객의 감각을 자극하고 몸에 대한 의식을 강화시킨다. 개별 작품의 주제는 주로 특정 지역의 지리학적 조건, 그 지역의 이야기와 역사 간의 관계를 다룬다.

레지던시 기간 동안 그는 인천의 지리학적 특징과 환경을 바탕으로 한 작업을 계획 중이다. 또한 이번 레지던시는 그에게 '기술', '물질성', '기계', '키네틱' 등 본인의 작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중요한 주제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In recent years, Daisuke Kuroda has conducted field work in Tsushima and South Korea and visited local art exhibitions and residencies, coming up with kinetic installation works that use images and electric appliances to show the relationship between geographical features and civilization.

His work is as big as to envelop the viewer's body, and it is made to stimulate the senses of the viewer and enhance consciousness of the body. The theme of individual works is also often relate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eographical condition of a certain land and its stories and history.

During the residency, he plans to create works that are based on a survey of geographic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 of Incheon. The residency is also for thinking about important matters such as "technology" "physicality" "machine" "kinetic", etc., which are directly related to his own work production.





## 테이아 코넬 Theia CONNELL

9~11월 Sep-Nov  
호주 아시아링크 교류 작가  
Exchange Artists  
from Asialink, Australia

theiaconnell@gmail.com  
www.theiaconnell.com

1990년 출생, 호주 호바트 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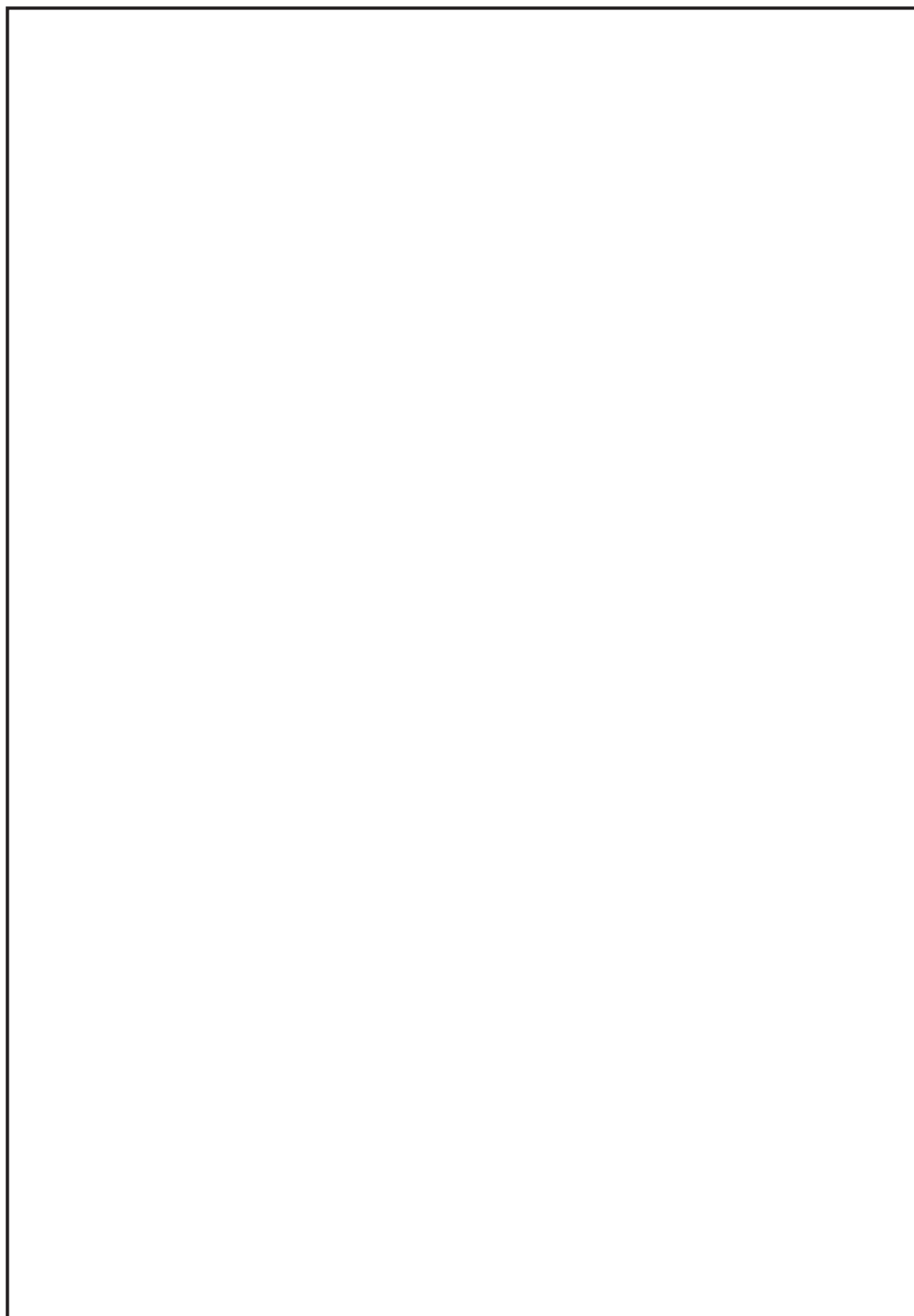
삼투실험\_50×33.1cm\_사진\_2016  
Testing Osmosis\_50×33.1cm\_photograph\_2016

테이아 코넬은 호주 호바트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작가로, 조각, 설치, 영상, 사진, 퍼포먼스, 사운드아트를 넘나든다. 2010년 멜번대학교에서 미술사와 인류학 학사를 취득하였고 2014년 빅토리아 미술대학에서 시각미술과 학사를 취득하였다. 2012년부터 호주 전역에서 전시를 하였고 2015년에는 실험미술공간 비주어 벌크(Visual Bulk)를 공동 창립하였고 현재는 그곳에서 전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코넬의 작업은 인류학적 관심, 특히 우리가 사물, 재료, 공간, 언어에 가치를 부여하는 방식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다. 그녀는 취향, 매력, 사치스러움, 세속적인, 상스러움과 같은 문제를 탐구하고 그러한 주제들이 어떻게 실체를 갖고 문화 속에서 배양되는지에 관심을 갖는다. 주로 장소(site)를 촉매제로 활용하고 작품의 제작과정을 보여줌으로써 한 공간의 세부사항을 탐구한다. 사물들의 형태적 생성과 작동하는 모습을 여러 방식으로 보여주고 작업 속에서 연극과 시적인 면모를 도출해내는 일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인천아트플랫폼에서는 한국의 공공 공간 속에서 한국인들이 표출하는 행동 양식을 관찰하고 그 인상을 퍼포먼스 기반의 영상 작업 시리즈로 제작할 계획이다. 장소특정적 설치작품으로 의상(코스튬), 소도구 등의 오브제를 사용하여 조각 작품도 제작할 것이다. 그녀는 주로 '기분'이나 '눈치'와 같은 한국인 고유의 개념을 집중적으로 탐구할 예정이다. '기분', '눈치'라는 개념을 퍼포먼스와 조각을 도구로 활용하여 표현하고, 이를 통해 인천과 서울의 환경 속에서 한국의 문화적 특징들을 다룰 것이다. 오래된 기념물, 식민지 시기의 건축물, 바빠 돌아가는 인천항, 현재의 수도권 광역시의 공존 상태가 새 작품의 윤곽을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

Theia Connell is a Hobart-based Australian artist who works across sculpture, installation, video, photography, performance, and sound. Theia completed a BA (Art History/Anthropology) at Melbourne University in 2010, and a BFA (Visual Art) at the Victorian College of the Arts in 2014. She has been exhibiting frequently across Australia since 2012, and in 2015 co-founded Visual Bulk, an experimental art space in Hobart where she currently programs and curates exhibitions. Connell's art practice is informed by an interest in anthropology and particularly the way we attribute value to objects, materials, space and language. Her practice explores the prescription of taste, appeal, luxury, mundanity or vulgarity and how this becomes culturally embodied in material. Connell often uses site as catalyst, looking towards the specifics of a space to inform the making of the work. She uses formal construction of objects and the performing body in multifaceted ways, aiming to draw out a sense of play and poetry in her work.

At Incheon Art Platform, South Korea, Theia aims to develop a new series of performance-based videos, reacting to the civic spaces of South Korea and the behavioral protocols they carry. This will be supported by a body of sculptural work that will come in the form of costume, prop, or object for site-specific installation. Her investigation will focus on the unique Korean concepts of 'kibun' and 'nunchi'. Using 'kibun', 'nunchi', performance, sculpture and collaboration as tools, Theia will play with the cultural specificities embedded in the built environments of Incheon and Seoul. The co-existence of ancient monuments, colonial buildings, the busy Incheon port, and the current mega-metropolis of Seoul will frame the new work.



**Director**

CHOI Byungkuk

**Team Manager**

YANG Jongnam

**Manager**

OH Byungsuk

**Curator**

OH Hyemi, LEE Areum, LEE Young-ri

**Producer**

KO Sungyoung

**Intern**

SHIN Nari, CHO Seoul

**Publisher**

CHOI Jinyong, President of Incheon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Date of Publication**

March 2017

**Organization**

IFAC-IAP

**Design**

Art-M

**2017 인천아트플랫폼****관장**

최병국

**팀장**

양종남

**과장**

오병석

**큐레이터**

오혜미, 이아름, 이영리

**공연담당**

고승용

**인턴**

신나리, 조서울

**발행인**

최진용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발행일**

2017년 3월

**발행처**

인천문화재단 인천아트플랫폼

**디자인**

아트엠